

환율 1420원대로 ‘뚝’…한은, 금리 딜레마

닉달만에 최저…무역 갈등에 안전자산 매력 감소 높아진 저성장 우려 속 ‘금통위 사흘 앞으로’

원·달러가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하며 닉달 만에 142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달러의 안전가치 상실에 따른 약달러에 달러지수가 100선대로 떨어진 영향이다.

높아진 저성장 우려 속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사흘 남기고 환율이 2월 금리 인하 결정 당시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9시 15분 원·달러는 전일 오후 종가(1449.9원) 대비 24.8원 내린 1425.1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대비 21.9원 내린 1428.0원에 장에 나서 낙폭을 확대했다. 1420원대 환율은 증가 기준 지난해 12월 10일(1426.9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환율 급락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 타격 우려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매력이 감소한 영

향이 컸다.

관계 정책 격화로 미국의 성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 값이 힘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다.

간밤 미국의 소비자물가 둔화 발표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예상치(2.6%)를 하회했다. 물가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다.

이 영향으로 지난 주말만 해도 103선 대였던 달러지수는 100선 내외에서 등락 중이다. 한때 99선으로 급락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 우

려에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뉴욕시간 기준 11일 폐장 전 4.593% 선까지 올랐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1.12% 오른 2459.95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401억원을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2억원, 638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은 전일대비 1.29% 상승한 704.55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450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5억원과 14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고환율과 높은 환율 변

동성으로 금리 동결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날 20원 넘게 급락하면서 원·달러는 2월 인하 당시인 1420~1430원대까지 내려오면 변수가 생겼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와 달러 약세를 감안해 1430원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봤다.

소재종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번 주 환율 레인지를 1410~1440원으로 전망하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안하더라도 비둘기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글로벌 경영 행보 나서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이 호주를 찾아 철강사업 경쟁력과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장 회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글로벌 철강사 대표들과 만나 인도 일관제철소 등 해외 철강사업 현안과 기술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세빅스에너지 가스전으로 이동해 천연가스 업스트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는 장인화 회장이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탄소감축 등 세계 철강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저탄소 공정의 환경개선 효과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등 이번 집행위원회의 핵심 어젠다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업계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 및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장회장은 복합적인 글로벌 철강산업 환경을 타개하고 사업 합작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회동하며 새로운 기회도 모색했다.

인도 JSW스틸 자양트 아차리야 사장과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중국 하강그룹 리우지엔(Liu Jian) 등사와과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합작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세계철강협회 회원사 회의에서 포스코는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됐다.

이어 장회장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한 세빅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방문했다.

장회장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 분야를 넘어 미래 사업 분야까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광양=조준의 기자



전남, 이달의 친환경 농산물에 진도산 유기농 키위

가 풍부한 슈퍼푸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 장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진도산 유기농 키위는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돼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군내면에서 유기농 키위를 재배하는 오송희 씨. 현재 42ha에서 연간 50~52t의 유기농 키위를 생산하며, 연소득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진도에서 재배된 유기농 키위를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특히 진도산 유기농 키위는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돼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군내면에서 유기농 키위를 재배하는 오송희 씨. 현재 42ha에서 연간 50~52t의 유기농 키위를 생산하며, 연소득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 /전남도 제공

‘한전 나비 효과’ 광주·전남 상장법인 흑자·영업익 증가

한전, 영업·순이익 흑자전환…상장법인 실적도 모두 증가

한국전력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2024년 매출액이 6.8%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등 32개 결산법인의 매출액은 101조3764억7100만원으로 전년(95조3868억6000만원) 대비 6.28%(5조9896억1100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5조5965억2100만원에서 지난해 3조7843억9400만원으로 9조7496억400만원 증가해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전년 -2조9480억8800만원에서 1조2151억4200만원으로 4조1632억3000만원 늘어 흑자 전환했다. 이는 지역 전체 매출액의 90.40%를 차지하는 실적 비중 최상위사인 한국전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나비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전력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91조6465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8%(5조8209억89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6조5039억1800만원에서 9조6705억7600만원 증가한 3조1666억58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전년 -3조2492억3300만원에서 4조785억7200만원 늘어난 8293억39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9조7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1686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이익은 6177억원으로 전년보다

14.67%(790억원) 늘었다. 순이익은 3858억원으로 전년대비 28.11%(8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 상장법인 32개사의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17개사가 흑자를 실현했으며 이중 5개사는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10개사는 적자가 지속됐다.

코스피 흑자전환 3개 기업별 순이익은 한국전력(8293억3900만원), 보해양조(62억9600만원), 대우에이텍(52억1400만원) 순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증가는 대우에이텍(14.57%), 보해양조(11.26%), 금호에이치티(10.81%), 금호타이어(5.45%), 한국전력(4.69%), 한전KPS(0.52%) 순으로 높았다.

코스닥 흑자전환 2개 기업별 순이익은 남화토건(67억9300만원), 그린생명과학(15억6200만원) 순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증가는 박셀바이오(74306.36%), 그린생명과학(79.41%), 에니젠(52.76%), EG(47.44%) 등 순이다. /권현안 기자

과수 개화기 이상저온…냉해 예방하세요

전남도,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농가 지도 강화

전라남도는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배꽃눈이 고사하는 등 과수 냉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상팬 가동, 예방약제 살포 등 농가의 철저한 피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시설 가동 ▲개화기 기상예보 수시 확인 ▲과수 냉해예방 약제 살포 ▲고체연료 연소 등 냉해 방지 조치를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적기에 가동하면 냉해 피해를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어 전남도는 국비 사업뿐

아니라 도비 사업으로 한파·이상저온 등 농업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를 올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고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하는 등 많은 농가에 재해 예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사과와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25%, 온풍기 설치 시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16곳 선정

민간전문가·소상공인·주민이 상권발전전략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권의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했다.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약 6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다.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됐다.

광주 동구는 동명 상권 청년 창업가와 주민의 협업모델인 골목리더 ‘동명크루’를 구체화하는 등 상인의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 ‘동명동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 다. /권현안 기자

전남도,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총력

순천 등 7개 시군 은어 27만마리 등 올해 102만마리 방류



라남해양수산과학원은 14일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 등을 위해 순천 등 7개 시군에 은어 27만 마리를 방류했다.

올들어 4월 첫 방류품종인 은어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순천 등 16개 시군에 뱀장어, 동남참개, 쏘가리, 등자개 등 7개 품종, 102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 후에는 품종별로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02~2024 주요 강 하천 등에 자원회복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어린 물고기 10개 품종, 319만 마리(73억)를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 호 기자

“동반성장” 금호타이어 협력사 상생의 길 모색

금호타이어가 협력사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를 비롯해 설비구매 주요 협력사 100개사 대표 및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준 기자

올해도 1주택자 세 부담 완화…4억 주택, 40% 경감

공시가 4억 ‘30만원→17만원’…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이 비율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